

# 장흥 전입 최대 9500만원 지원...귀향인 특별조례 추진

### 인구감소 대응 설문조사... '현금지원 강화' 70%로 가장 많이 꼽혀 귀농 주택 수리비 대상 확대 등 인구 늘리기 신규 시책 발굴 총력

지난달 인구감소 대응 설문조사를 벌인 장흥군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늘리기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장흥군은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귀촌인의 주택 수리를 돕고, 출향인 지원을 위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달 군민 대상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현금지원 강화' (70%)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벌인 설문조사에서 1억원 현금지원을 가장할 때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한 사례와 비슷한 결과라고 장흥군은 설명했다. 장흥군은 기존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더해 실현 가능한 신규 시책들을 발

굴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장흥으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월세나 전세 이자를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10만원의 전입장려금 등 1인당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청년이 장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남녀 청년들에게 결혼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결혼 활영비 ▲신혼부부 이사비 등 최대 1800만원도 지원한다. 임신·출산자에게는 ▲출산장려금 ▲출생아 첫 만남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등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에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최

대 5500만원의 지원 혜택이 따른다. 이들 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9500만원의 지원 혜택이 있다. 최근 장흥군은 그동안 귀농·귀어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주택 수리비를 귀향인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장흥군은 시범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출향인들이 활발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며 정책지원 근거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는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의 운영"이라며 "전입 인구가 청년들이 장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고찬훈(가운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자원기술팀장이 울진군 야생화연구회 회원들에게 국화 재배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함평군 제공)

## “함평 국화 분재기술 잘 배우고 갑니다”

### 울진 야생화연구회원 등 21명 농기술센터 찾아 재배 기술 배워

함평군은 울진군 야생화연구회가 최근 함평을 찾아 국화 분재 재배 기술을 배워갔다고 13일 밝혔다. 울진군 야생화연구회원 등 21명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국화 작품전시회를 위한 시범 재배관리 기술 등을 배웠다. 이날 방문은 함평군의 국화 분재 재배기술 교류를 통한 대중화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국화 등록품종 23종과 육종계통

240종을 관리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를 운영하며 국화 분재와 국화조형물 연출로 전국적 역량의 국화 분재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해마다 '대한민국 국화대전'을 열어 국화 분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화대전은 지난해 대표작에 선정되고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을 받았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화대전 등을 통해 축적된 국화 분재 재배기술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하겠다"며 "국화에 관심 있는 많은 이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힐링 명소로 뜬 장성 황룡강 이팝나무 길 장성군 황룡강 상류 일원 이팝나무 길 풍경이 고즈넉하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팝'은 '이밥'의 사투리로, 꽃이 무리지어 피어있는 모습이 잘 지은 쌀밥을 연상시킨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이팝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는 말도 전해진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장성군, 황룡강 축제장 도로명주소 부여

### 24~26일 축제 앞두고 접근성 향상

장성군이 오는 24~26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준비의 일환으로 강변 26개 장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장성군은 외부 방문객의 경우 인파가 붐비는 축제기간에는 화장실이나 주차장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로등과 주차장, 화장실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축제 개막 전까지

안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약속 장소를 정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출동에도 도움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부여를 통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황룡강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군, 수자원공사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담양군이 물 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담양군은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제18회 물과 건강 포럼'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담양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상수도 관 교체, 관로의 단면 확대를 통한 출수 불량 해소, 재염소 투입설비 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을 통한 상수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노후화된 신계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원(오른쪽) 강진군수가 지난 9일 제주 (우)오설록 티백토리에서 이진호 대표를 만나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 관련, 오설록 소유의 적정 부지에 대한 매각에 합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월출산 권역 관광개발 본격화

### 2027년까지 300억 투입 조성 탐방기반시설 부지 매각 합의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탐방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이 이뤄지면서 월출산 권역 관광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제주도에 있는 (우)오설록 티백토리에서 이진호 대표를 만나 오설록 소유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적정 부지를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통과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에는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8만2645㎡(2만5000평) 부지에 야영장 100동

과 카라반(자동차야영장) 15동을 설치하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저지대 숲 체험 기반시설과 육방봉 탐방로 등도 들어선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은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내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정부의 건축재정 기초 속에서 도 지속해서 국비 사업을 건의하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오설록과 부지 매각을 합의하면서 월출산에 조성된 강진 다원과 백운동 원림, 무위사 등 관광 기반시설을 활용한 아모레퍼시픽의 투자를 제안했다. 지역 활성화와 투자 펀드를 활용해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진호 (우)오설록 대표는 "현재 티하우스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오설록은 강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쌀 1000t 뉴질랜드·호주 수출길 오른다

### 현지업체와 협약...이달 21t 선적

나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박 7일간 뉴질랜드·호주를 찾아 현지 수입업체와 '나주쌀 1000t 수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 나주쌀 새정부 2차분 21t이 수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뉴질랜드 첫 수출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현지 유통매장에 처음 선보인 새정부 2차분 판매 일주일 만에 600포(12t)가 팔렸다.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올해 2월 뉴질랜드에 총 140t의 새정부 2차분을 7회에 걸쳐 수출하기로 현지 수입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새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쌀이 주류를 이루는 뉴질랜드 쌀 시장에서 좋은 밥맛과 끈직한 식감으로 현

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새정부의 인기에 힘입어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왕건이 탐내 쌀'과 '오뎅쌀'도 수출길에 올릴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세계적 브랜드 쌀 육성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나주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 2024) 참가 지원을 한다. 이 밖에도 수출용 포장 개발 등 다각적인 쌀 수출지원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맛과 영양이 검증된 나주쌀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쌀 수출 확대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뉴질랜드 베스트바이 마켓에서 나주쌀 '새정부'가 판매되고 있다. (나주시 제공)